

김별아의 문학과 삶



어떤 시작

얼마 전 불일이 있어 아랫녘에 다녀오다가, 차창 밖으로 기묘한 풍경이 펼쳐진 것을 보았다. 베어난 벼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겨울 논밭에 어린 학생들이 출지어 엎드려 뺑쳐 자세를 하고 있었다. 근처의 수련원으로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온 학생들이 '신고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얼어붙은 땅을 짚고 깽깽거리는 신입생들 옆에는 훈련소의 교관 같은 선배들이 뒷짐을 진 채 잔뜩 품을 잡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이제는 군부대에서도 엄격히 금지하는 '군기'를 잡기 위한 가혹행위가 고작 한 두 살 위의 '하늘 같은' 선배님들에 의해 자행되는 것이다.

신고식 문화는 기실 그 역사적·문화적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그것을 '신참례'라고 불렀는데, 16세기 서적인 '용재종회'에 기록된 사례를 보면 이 유구한 '전통'에 헤를 내두르게 된다. 방 가운데서 서까래만 한 긴 나무를 신참에게 들고 하다가 뒤로 물을 끌고 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선배들에게 불공했다는 이유로 파직되거나 징계를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유흥이 선조 임금에게 폐습의 혐과를 건의하며 했던 이야기 중에 '신참례'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연원이 나온다.

"고려 말년에 과거가 공정하지 못하고 과거에 뾰족한 사람이나 모두 귀한 집 자제로 입에 입장을 내두르게 된다. 방 가운데서 서까래만 한 긴 나무를 신참에게 들고 하다가 뒤로 물을 끌고 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선배들에게 불공했다는 이유로 파직되거나 징계를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유흥이 선조 임금에게 폐습의 혐과를 건의하며 했던 이야기 중에 '신참례'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연원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신참에게는 신참을 잡아 놓았지만, 선배들에게는 불공했다는 이유로 파직되거나 징계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신참에게는 신참을 잡아 놓았지만, 선배들에게는 불공했다는 이유로 파직되거나 징계를 당하게 되었다.

고 즐거운지 알 수 없는 이 '놀이'는 '거미잡기'라는 기발한 방식으로 이어진다. 손으로 부엌 벽을 문질러 겹겹으로 두 손이 윗찰한 듯 겹어지면서 손을 씻어 한 뒤 그 물을 마시게 한다. 그런데 그 물이 얼마나 더러웠던지 토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지. 이를 보면 술을 미시고 '상대별곡'을 노래하게 하는 것은 기득권자들의 '벗세'가 되고 말았다.

조선의 전래 이율곡은 선배들에게 '신참례'라는 명목으로 과롭힘을 당하다 못해 반발하였고,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소속되었을 때 선배들에게 불공했다는 이유로 파직되거나 징계를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유흥이 선조 임금에게 폐습의 혐과를 건의하며 했던 이야기 중에 '신참례'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연원이 나온다.

"고려 말년에 과거가 공정하지 못하고 과거에 뾰족한 사람이나 모두 귀한 집 자제로 입에 입장을 내두르게 된다. 방 가운데서 서까래만 한 긴 나무를 신참에게 들고 하다가 뒤로 물을 끌고 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선배들에게 불공했다는 이유로 파직되거나 징계를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유흥이 선조 임금에게 폐습의 혐과를 건의하며 했던 이야기 중에 '신참례'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연원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신참에게는 신참을 잡아 놓았지만, 선배들에게는 불공했다는 이유로 파직되거나 징계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신참에게는 신참을 잡아 놓았지만, 선배들에게는 불공했다는 이유로 파직되거나 징계를 당하게 되었다.

'신참례'는 과연 "정의로운 폭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논란이 저 시대에도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후로 점점 변질하기 시작한 '신참례'는 조선에 들어와 체통을 깊어지게 하여 혐과를 버리게 한 뒤에야 벌어지게 된 명부에 올려 주는 기득권자들의 '벗세'가 되고 말았다.

응징과 던져 사이에는, 내가 전에 당했던 것을 뒷사람에게 돌려주려는 '복수'의 마음이 자리한다. 하지만 그 복수가 제대로 된 복수가 아니라 비겁하고 지질한 강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당사자와 맞서 싸우지 못하고 자기보다 더 힘없는 뒷사람에게 보복한다는 사실이다.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벌어지는 이 우아스런 신고식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 여전히 양면한 독재시절의 군사문화를 떠올리기도 한다. 위계질서와 권위의 강요, 그리고 간간이 점화되는 폭력 때문에이다. 그러나 프랑스에도 '비취타주'라는 전통 신고식이 있고, 미국에도 대학 클럽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와 비슷한 신고식이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를 비롯한 어느 단체와 모임에도 이런 식의 신고식은 종종

나타난다.

역사학자나 종교학자들은 이런 문화를 '고대로부터 이어진 통과의례의 속화된 형태'라고 해석한다. 혹독한 통과의례의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있으며, 새로운 구성원이 이를 시일 내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인 것이다. 한바탕 일자리 뒤에 벌어지는 화해의 의식이 전정한 '페밀리(family)'를 만든다고 하는데...

논밭에 엎드려 뺑쳤다 일어나 친이처럼 고개를 끄 숙이고, 선배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저 신입생들은 불공정하게 과거에 급제한 명문자제들이 아니다. 벼를 고치기 위해 행하는 학대와 구박은 좁은 책임상에 갇혀 공부에 시달렸던 수험생 시절에 내 남없이 모두 겪었던 일이다.

이는 21세기다. 더 이상 '집단을 위한 개인'을 강요할 수 없는 시대다. 조직의 결속력을 디자인에 상대방을 모욕하고 학대하면서 동질감을 느끼는 것으로는 진정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나눌 수 없다. 함께 낮아지기보다는 함께 높아질 방법은 없을까? 진정에서 뒤엉켜 맹구는 시작이 아닌 아름다운 시작이 절실히 터이다. <소설가>

종교칼럼



김 كان 수
천주교 광주대교구 청소년시목국장

더 적게 행동하고 더 많이 존재하십시오

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의 존재감을 지난 일년 동안 전혀 느낄 수 없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이 말씀에 공감하였습니다. 미사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도 동감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쓸쓸한 건 무슨 까닭이었을까요? 선거 무효 소송인단이 작성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따르면 선관위가 부개표 과정에서 부정하게 개입한 단서가 발견되었을 때, 지난해 1월4일자로 '대통령 직무정지 집행 거쳐본 신청'과 함께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하니 그에 따른 법집행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건 대선 투표결과에 국민은 순응하였고, 그래서 박근혜씨에게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지난 1년 동안의 국정을 맡겼기에, 그런 우리나라 대통령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론 안타깝고 마음 한 견이 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존재감'이란, 그 사람이 있음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존재감이란, 부모님 죽음 이후에도 내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분들의 큰 자리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

떡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단지 역할수행차원에서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철저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여 우리는 '남이 나를 이렇게 봐주면 좋겠어'라고 의식하면서 '그러한 행동만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니었나'하고 깊게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행동은 삶의 외형적인 면을 추구하지만, 존재는 내면과 외형이 통합된 온전한 삶을 살게 합니다. 행동은 자신에게로 향한 관심의 표현이지만, 존재는 나를 포함하여 타인을 향한 사람의 유희와도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말씀이 유효된 사건이요, 그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유효 사건은 하느님이 인간처럼 행동하셨던 사건이 아니라, 윤전한 인간으로서 곧 닥쳐온 고난이 너무나 두려워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삶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루카 22, 42)라고 애원하셨을 만큼 인격적이고 존재론적인 사건입니다. 하느님이 정말로 참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동하기보다는 되고자 하는 그 사람으로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타인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편에서는 그를 향해 무한한 신뢰와 희생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는 그러한 나의 믿음과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에서 청소년들의 스승이요, 아버지라고 불리는 성 요한 보스코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청소년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박근혜씨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존재감을 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점검해 보는 어느 모 일간지의 최근 기사 중, "대선 공약 뒤집은 '나만의 원칙'"... 여론과 동떨어져 국정 발목"이라는 타이틀이 존재감의 부재를 대변해 주는 듯합니다. '대선 핵심 공약의 축소와 폐기 그리고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등의 핵보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의 소리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듣고, 대선 공약의 양축이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통한 한국형 복지국가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대통령 집권 2년차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기고



김 완 기
남도학숙원장

남도학숙 개관 20주년에 즐음하여

토장학생이나 다른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에 두고 있음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난 20년 동안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노하우와 지원시스템을 밟아온 학생들의 생활만족도와 생활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늘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학생 자율회 등과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학생 상호간의 견고한 교류활동과 학생들의 자기계발 및 취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편의시설 등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남도학숙에는 장학금 운영도 매우 활발한 편이다. 뜻있는 많은 독지가들이 기탁한 장학금으로 매년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고 학숙에서 생활했던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한 후 시·도민에 대한 보은과 후배들을 돋پ기 위해 쾌적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장학금도 있다. 그동안 총 713명에게 23억원을 지급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돌이켜보면 남도학숙은 400만 남도민의 간접된 업원이 결집한 장학관이다. 설립과 정관과 보다 더 남도학숙은 우리 지역의 시도민 17만 명에게 기탁한 성금과 시·도 및 시·군비 출연으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설립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시·도 공동부담에 의한 경비지원으로 공동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도학숙 학생들은 시·도의 향

생본위, 학생 편의주의에 있다. 학숙 운영의 가치와 보람을 우선적으로 주고객인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에 두고 있음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광주·남도출신 정·관·재계 인사 부인들이 모임인 탑미회 등의 지원을 포함해 지금 까지 총 393명에게 유럽 배낭여행, 해외 문화체험, 해외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해 올해에도 20여명을 선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광주·남도출신 정·관·재계 인사 부인들이 모임인 탑미회 등의 지원을 포함해 지금 까지 총 393명에게 유럽 배낭여행, 해외 문화체험, 해외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해 올해에도 20여명을 선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남도학숙에는 장학금 운영도 매우 활발한 편이다. 뜻있는 많은 독지가들이 기탁한 장학금으로 매년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고 학숙에서 생활했던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한 후 시·도민에 대한 보은과 후배들을 돋프기 위해 쾌적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장학금도 있다. 그동안 총 713명에게 23억원을 지급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돌이켜보면 남도학숙은 400만 남도민의

생본위, 학생 편의주의에 있다. 학숙 운영의 가치와 보람을 우선적으로 주고객인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에 두고 있음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광주·남도출신 정·관·재계 인사 부인들이 모임인 탑미회 등의 지원을 포함해 지금 까지 총 393명에게 유럽 배낭여행, 해외 문화체험, 해외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해 올해에도 20여명을 선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광주·남도출신 정·관·재계 인사 부인들이 모임인 탑미회 등의 지원을 포함해 지금 까지 총 393명에게 유럽 배낭여행, 해외 문화체험, 해외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해 올해에도 20여명을 선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남도학숙에는 장학금 운영도 매우 활발한 편이다. 뜻있는 많은 독지가들이 기탁한 장학금으로 매년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고 학숙에서 생활했던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한 후 시·도민에 대한 보은과 후배들을 돋프기 위해 쾌적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장학금도 있다. 그동안 총 713명에게 23억원을 지급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돌이켜보면 남도학숙은 400만 남도민의

社說

전남~제주항로 과열, 출혈경쟁 안된다

전남에서 제주를 잇따라 개설되면서 과열경쟁 논란이 일고 있다.

각 자체가 우후죽순처럼 빼길을 열면 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이전까지는 전남에서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은 목포·완도항에서만 입출항할 수 있었다. 2008년에는 고흥·녹동~제주 항로가 신설됐고, 2011년 장흥 노력항~성산포항 운항이 시작되면서 본격 경쟁체제로 돌입했다.

는 바탕에 엎드려 뺑쳤다 일어나 친이처럼 고개를 끄 숙이고, 선배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저 신입생들은 불공정하게 과거에 급제한 명문자제들이 아니다. 벼를 고치기 위해 행하는 학대와 구박은 좁은 책임상에 갇혀 공부에 시달렸던 수험생 시절에 내 남없이 모두 겪었던 일이다.

이는 21세기다. 더 이상 '집단을 위한 개인'을 강요할 수 없는 시대다. 조직의 결속력을 디자인에 상대방을 모욕하고 학대하면서 동질감을 느끼는 것으로는 진정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나눌 수 없다. 함께 낮아지기보다는 함께 높아질 방법은 없을까? 진정에서 뒤엉켜 맹구는 시작이 아닌 아름다운 시작이 절실히 터이다. <소설가>

4355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경합하면서 제주 항로가 목적에 계속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강진군은 선사 측에 초기 손실을 보전해주되, 수익이 나면 회수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익이 불투명한 상태다. 군은 협의과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엔 청정해역 오염, 너울에 의한 양식장 피해 등 민원 발생 소지도 적지 않다. 배를 타기 위해 잠시 스쳐가는 관광객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

우리는 '묻지마 투자'로 인한 폐해를 숨기지 않고 보았다. 비밀하우스 재배 초기 너도 나도 설비를 갖췄다가 가격 폭락을 불러왔다. 제주 항로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지자체들은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을 세워 면밀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전파연구원 혁신도시 이전 꼼수 부리다니

오는 6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본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서울에 별도의 사무실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전파연구원 측은 최근 연간 각종 위원회와 심의회 등 200여 차례 회의가 예정돼 있어 외부 참석자들의 편의를 이유로 서울에 회의실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직원 142명이 근무하는 전파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전파 기반기술 연구와 전파환경 보호, 정보통신기기 인증 및 전파산업 지원 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는 국가 연구기관이다. 따라서 서울에 사무실을 운영할 경우 연구원 관계자 상당수는 회의 참석을 이유로 서울에 출퇴근하는 경우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잔물을 끼얹는 전파연구원의 그릇된 행태에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계획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전체 대상 기관의 치질없는 이전을 정부에 촉구해야 할 것이다.